

“일만이천의 자주적 학생회 건설”

서울캠 총학후보 1차 유세서 ... 총여후보, 여성권리찾기 선언



지난 5일 서울캠 중앙도서관앞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중앙기 구 1차 유세가 열렸다.

2000학년도 학생회 건설을 위한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지난 5일 오후 1시 중앙도서관 앞에서 1차 합동유세가 열렸다. 1백50여명의 학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유세는 1시간 30분간 진행되었다.

가운데 진행된 이번 유세는 △민중의례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김호중 총학생회장 단식투쟁 정리 △총여학생회 후보 김박선경(행정3)·한이윤영(물리반도체과학부2) 유세 △총학생회 후보 이승복(반도체(야)3)·김태광(국교3) 유세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유세에 앞서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8일간의 단식을 진행한 김호중 총학생회장은 정리발언에서 “국보법 폐지의 열망과 주한미군 철수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단식을 진행했다”며 “오늘(5일) 오전, 국보법 개정반대에 서명했던 중구 지역구 박성범 의원 사무실 타격 투쟁을 전개했다”고 말했다.

자주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전제한 뒤 “학우들과 함께하는 자주적 학생회를 건설하고, 학원 내의 민주화와 자주화를 기필코 이루어내며 2000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하는 것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분단된 이땅에서 주한미군을 반드시 철수시켜내고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일에 일만이천 동학의 학우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보자들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오늘(8일)부터 등록금 인상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과 선거종료 후 곧바로 등록금 책정협의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가 시작된 이후 첫번째로 열린 1차유세는 지난해와 달리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일부 단과대가 후보자를 내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한 학생은 유세소감을 밝혔다. 한편 2차유세는 오는 10일 오후 5시 동국관 앞에서 열린다. 유철주 기자 cowso@cakra.dongguk.ac.kr

2000학년도 대학원 입학전형 확정

본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에 7개학과와 불교대학원 석사과정에 장례문화학과가 신설되는 등 2000학년도 대학원 입학전형이 일부 조정됐다.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에 독일학과를 비롯해 △일어일문학과 △북한학과 △반도체과학과 △기계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체육학과 등이 신설됐다. 또한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

서울캠 신문방송학과와 경주캠 관광호텔경영학과가 신설됐고, 국민윤리학과가 윤리문화학과로 명칭이 변경됐다. 한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장묘문화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장례문화학과가 전국에서 최초로 신설돼 장묘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0학년도 입시 서울 ‘나’·경주 ‘라’군

특차 전·후 두차례 실시 ... 지역방문 입시전형 재개

본교 2000학년도 신입생 모집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서울캠은 ‘나’군, 경주캠은 ‘라’군의 입시일정을 따른다. 또한 특차모집을 내신성적과 수능능력시험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각각 특차 전반기와 후반기로 분리하는 등 선발기준이 다양해졌다. 특차 전반기 모집은 외국어 우수자, 특기자, 수학·과학 교과성적 우수자, 학교장 추천 등의 교과성적이 우수한 수험생 위주로 선발하며, 특차 후반기 모집은 일반전형과 병행해, 취업자, 특수교육대상, 소년소녀가장 등을 우선 선발하는 논술고사는 우수학생들에게 폭넓은 지원 기회를 제공하고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극·영상학부 이론연출, 경찰행정, 한의학과 등 일부학과를 제외한 서울캠 특차일반전형의 경우 인

문계열 수능 상위 7%의 지원자격을 상위 8%로 낮추었다. 인문·자연계열의 교차지원은 가감점 적용없이 시행하며 정시모집에서 실시하는 논술고사는 인문계열에 한해 실시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 기상이변과 경비부담의 이유로 시행되지 않았던 지역방문 입시전형은 부산, 대구, 제주, 강릉 등 전국 8개 도시에서 재 실시되며, 지난 해 경

주캠에 한해서 실시한 입학원서 전자접수는 서울캠도 함께 실시한다. 삼성SDS주관으로 전국 한일은행 및 농협중앙회 지점에서 전자접수용 입학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입시일정은 다음과 같다. △특차 전반기 모집 = 원서접수 11월 24일(수)~11월 27일(토), 합격자발표 12월 15일(수) 이전 △특차 후반기 모집 = 원서접수 12월 19일(일)~12월 21일(일), 합격자 발표 12월 25일(토) △정시 모집 = 원서접수 12월 28일(화)~12월 30일(목), 합격자 발표 2000년 1월 31일(월) 이전.

본교 BK21사업 7개팀 지원

인문사회 3팀·핵심분야 4팀

오늘 마감하는 BK21 사업의 인문사회분야와 추가로 공고된 핵심분야 사업에 본교에서는 모두 7개팀이 신청했다. 먼저 인문사회분야에는 불교대 교수들의 ‘불교문화사상사 교육연구단’을 비롯해 △문과대 교수들의 ‘세계화속의 한국적 인문학정립 교육연구단’ △사과대와 경향대, 공대 교수들이 중심이 된 ‘21세기 정보화사회의 산업정보화 교육연구단’ 등이 신청했으며, 핵심분야에는 △정치외교학과 교수들의 ‘21세기 국가발전 전략을



서울(?)... 지난 1일부터 시작된 후문앞 일방통행으로 이곳을 이용하던 사람들의 불편함이 해소되고 있다. 예전의 혼잡하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후문앞이 썰렁해(?) 보이기까지 하다. 유철주 기자 cowso@cakra.dongguk.ac.kr

지면안내

학생회, 되짚어보기 6-7면

올해도 어김없이 학생회 선거가 시작됐다. 선거의의와 서울캠 중앙기구 후보들을 만나 출마동기 등을 들어보았다.

유가협 농성 1년 4면

과 학술제 진단 9면

양주동박사의 생애와 학문 10면



출가(出家)는 새로운 출발

정성본(불교문화대 불교학부)

서산대사의 선가귀감(禪家龜鑑)에 다음과 같은 일절이 있다. “출가하여 수행승이 된 길 이 어찌 작은 일이라! 편안하고 한가히 안일함을 추구하기 위한 것도 아니며, 파릇이 웃고 배불리 먹으려고 한 것도 아니며, 명예나 지위, 재물을 구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오로지 생사의 고해를 벗어나기 위한 것이며, 번뇌의 속박을 끊기 위한 것이며,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정신을 계승하여 삼계를 뛰어넘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것이다.”

출가 수행승의 본분을 너무나도 절실하게 제시하고 있는 일단기기에 언제나 이 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진다. ‘석씨요람’에도 출가승의 본분으로는 첫째는 좌선 수행이며, 둘째는 경전을 읽고 불법을 배우는 것, 세번째는 중생교화의 보살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세가지 일을 구족하지 못한 사람은 부질없이 살다가 죽만 짓고 사는 인간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사실 출가는 세속적인 가치관인 오욕(五慾)을 떨쳐버리고, 불법의 가르침을 통하여 만법의 진실을 깨닫고 지혜와 인격을 형성하는 출세간적인 가치관을 구현하기 위한 수행자의 길을 걷는 것이다. 출가는 새로운 출발이다. 순간순간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과 진실을 추구하기 위한 새출발을 하는 삶인 것이다. 새로운 출가는 자신의 안주와 정체성을 떨쳐 버리고 자기 향상과 창조적인 삶을 향한 끊임없는 구도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맑고 청정하며, 지혜롭고 진실된 삶을 구현하는 수행자는 자유로운 구도의 행각을 하기위해 출가를 하는 것이다.

사실 진정한 출가 수행자는 자유로워야 한다. 세속적인 명예나 지위, 재물에 연연하지 않는 자유인이 되어야 한다. 일체의 속박을 떨쳐 버리기 위해 출가한 것은 이러한 의미인 것이다. 임제가 말한 것처럼 안으로 얻을 것이 없고 밖으로도 구할 것이 없으며, 또한 진리의 세계인 깨달음의 경지에도 머무르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출가인이며 무위진인(無位眞人)이라고 할 수 있다.

발전기금 ARS 7000-119

수습기자 모집안내

- 모집인원 : 서울 캠퍼스 0명
- 응시자격 : 1학년 남·여 재학생
- 모집분야 : 취재·사진·문화 기자
- 제출서류 : ① 지원서 1통 ② 자기소개서 (지원서는 본사 총무부에서 배부중)
- 원서마감 : 1차-11월 11일(목) 오후 5시 2차-11월 24일(수) 오후 5시
- 원서제출처 : 본사 총무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면접일시 및 장소 : 1차-11월 11일(목) 오후 6시 2차-11월 24일(수) 오후 6시 본사 회의실
- 본사 기자에게는 장학금과 활동비 및 해외연수의 특전이 부여됨

동대신문 기획광고

지금 도전하십시오!

제 37회 동대 학술상

△모집분야 : 인문과학상-본상 및佳作 사회과학상-본상 및佳作 자연과학상-본상 및佳作 △응모요령 : 3개분야 모두 2백자 원고지 60매 내외의 학술논문 △응모자격 : 본교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제출기간 : 1999년 11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시상 : 인문과학상-본상 50만원,佳作 25만원 사회과학상-본상 50만원,佳作 25만원 자연과학상-본상 50만원,佳作 25만원 △심사위원 : 본사에서 위촉하여 입상작과 함께 발표 △입상작 발표 : 2000년 1월 1일자 본지 지상

●제출처 :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동대신문사 02)2260-3491/2 ●제출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사로 문의바랍니다.

제 14회 동대 문학상

△모집분야 : 시부문-본상 및 장려상 소설부문-본상 및 장려상 평론부문-본상 및 장려상 △응모요령 : 시부문-3편내외 소설부문-2백자 원고지 60매 내외 평론부문-2백자 원고지 60매 내외 △응모자격 : 본교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제출기간 : 1999년 11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시상 : 시부문-본상 30만원, 장려상 15만원 소설부문-본상 50만원, 장려상 25만원 평론부문-본상 50만원, 장려상 25만원 △심사위원 : 본사에서 위촉하여 입상작과 함께 발표 △입상작 발표 : 2000년 1월 1일자 본지 지상

학생상담실, 유학박람회 개최

오는 15일부터 1주일간

학생상담실(실장=정진환·교육학)은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1주일간을 해외 유학 및 어학연수 상담주간으로 설정하고 유학박람회를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본관 학사지원실옆 로비에서 개최한다. 학문 성취 및 어학능력을 향상시키고 유학 및 어학연수를 가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이번 박람회는 캐나다, 영국, 호주, 미국, 일본 등 5개국의 유학안내기관을 초청하여 국가별로 1일씩 안내 및 개인별 상담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제는 결면 결린다!”

본관·과학관 옥상에 이동전화 중계기 설치

정보관리실(실장=이종욱·정보관리학)은 오는 15일 개통을 목표로 이동전화 중계기를 본관 옥상과 이과대 과학관 옥상에 설치할 예정이다. 이번 설치는 우선 011(SK 텔레콤)과 016(한국통신프리텔) 두 번호만 유지한 것으로 나머지 업체들도 협의를 거쳐서 곧 유지할 예정이어서 학내 이동전화 사용이 예전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 설치에는 학생들의 이동전화 수요가 늘어난과 함께 학교 홈페이지등을 통해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중계기 설치를 건의함에 따른 것이다.

시청각교육실 오늘 폐쇄·공사시작

이용자 불편 해소 방안 마련돼야

동국관과 해화관을 비롯한 학내의 전반적인 공간이동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시청각교육실이 시설확충과 해화관 1층으로의 이전을 위해 오늘(8일)부터 폐쇄와 함께 공사에 들어간다. 이번 공사는 오는 2000년 2월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멀티미디어 언어교육시설과 첨단 학습실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평소 시청각실을 이용하던 학생들의 불편과 관련해 언어교육원의 한 관계자는 “해화관 1층에 준비중인 임시실습시설과 도서관의 멀티미디어실을 이용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회학과 20주년 축하 행사 개최

오는 11일부터 학술세미나 등 진행

사회학과(학생회장=박경태 3)는 올해로 창설 20주년을 맞아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을 ‘사회학과 20주년 주간’으로 정하고 10일 동국관 앞 통일광장에서 열리는 개막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사에 들어간다. 11일에는 ‘한국사회학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덕암세미나실에서 학술세미나가 열리며 이날 오후에는 사회학과 학술소모임인 새로운 사회연구회의 ‘대학구조조정과 학회의 대응전략’이라는 학생 세미나가, 12일에는 ‘언론의 사회적 의미와 역할’이라는 주제의 손석희 MBC아나운서 초청특강과 6시부터는 ‘전공학회의 가능성-학생회 없는 대학사회를 생각하며’에 대한 학생세미나가 덕암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10면 광고 참조)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송석구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편집인 겸 주간	양영진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ac.kr
부주간	심규박	하이텔 ID	dgpress 니우누리 ID 동대신문
편집국장	박상관	천리안 ID	dgupress
편집장	김미경	구독문의 :	(02)2260-3491·2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7가 26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전화 (0661)770-2058 팩스 (0661)770-2057

제2도서관 내년 6월 착공

강의동·테니스코트 부지에 건립 예정

지난 1학기 99학년도 상반기 학자합의안으로 확정돼 그동안 학내 외의 뜨거운 관심을 불러모았던 제2도서관 건립문제가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학교당국에서는 내년 6월 착공하기로 잠정적인 결정을 한 상태이며 이를 위한 사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사무처(처장=황영수)에서는 제2도서관을 지상 3층 지하 2층 총 3천5백평 규모로 강의동과 테니스 코트자리에 신축하는 것을 기본 계획으로하는 공사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지난 10월부터 공간확정과 토지이용·배치 등의 기초실무

작업에 착수했으며, 이달중에 1차 도면이 나올 예정이다. 이에따라 강의동과 학군단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테니스 코트는 도서관 옥상으로 이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년 4월 이전에 설계도면을 마무리 해 6월중에 공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앙도서관(관장=조용길·불교학)과 도서관운영계획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사무처 이창진 시설관리팀장은 “아직은 구체적인 상을 만드는 것이 아닌 기초 기획단계”라면서도 “도서관 운영계획 등이

확정되면 건립을 위한 작업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2도서관 건립이 확정되면서 총학생회(회장=김효중·불교4, 이하 총학)또한 지난 1학기부터 추진해온 도서관 자치위원회 구성을 위한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있다. 32대 총학 후보로 출마한 선거운동본부에서도 도서관 자치위원회를 비롯한 도서관 관련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된다. 한편 다학관 개수공사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 내년 4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내년 6월 신축될 예정인 제2도서관은 현 강의동과 테니스코트 부지에 건설될 예정이다.

그동안 학내 복지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던 제2도서관 신축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좀더 안정되고 여유있게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유철주 기자
cowso@cakra.dongguk.ac.kr

인기학과 편중 갈수록 심화

전공선택 결과 드러나... 대책 마련 시급

지난 달 시행된 2학년 2학기에 재학중인 학부·계열 입학생들의 전공 및 학과결정이 취직이 잘 되고 공부하기 수월한 학과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학부의 경우 사학과는 기준 정원 30명에

53명이 지원해 47명이 배정되어 기준정원대비 배정정원이 1백57%를 보였다. 반대로 철학과는 30명 정원에 10명이 지원했으나 12명이, 윤리문화학과는 12명 지원에 16명 배정되어 각각 40%와 53%의 정원 배정비를 나타냈다. 또한 전자전기공학부는 전기공학 전공에 1백10명 정원에 1백22명이 지원해 1백11%의 정원 배정비를 보인 반면 전기공학 전공은 1백명 기준에 단 13명만이 지원해 13%의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외에도 사회과학계열은 행정학과(1백23%), 생명자원과학대는 응용생물학과(1백50%), 국어국문학부는 문예창작전공(1백90%)으로 지원이 편중했다. 이와 관련해 학사지원실의 이병천 실장은 “98%의 학생들이 지망한 학과로 선정되었다”며 “모집단위가 더욱 광역화되면 편중 지원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등 비인기전공 교수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주에 접수된 복수전공은 대부분 영문, 일문학 및 경상대학의 전공 등 실용적인 학과 위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5백여명이 신청한 것에 비해 올해는 9백여명으로 신청자가 많이 증가했다.



두리터 ... 학습관과 문화관 사이의 공간이름을 두리터로 결정했다. 두리터란 예술가와 대학원생들이 함께하는 공간이라는 뜻이다.

유철주 기자 cowso@cakra.dongguk.ac.kr

16대 동연 당선자 인터뷰

“생산의 정치를 향한 힘찬도약”

한세영·박혜진 조 지난 5일 91% 지지율로 당선



16대 동연선거에 당선된 박혜진(좌)·한세영(우) 조

‘16대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 정·부회장 선거에 출마한 한세영(전기공3, 사우회 회장)·박혜진(경영3, 민중사랑 회장) 조가 지난 5일 63%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91% 지지를 얻고 당선됐다. 이들을 만나 당선소감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어보았다. -당선소감은. = 지속적으로 해왔던 활동 속에서 선거 활동도 함께 했다. 당선여부를 떠나 열심히 활동한 것에 대해 의의를 두고 싶다. 내년에 벌일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야겠다. - ‘생산의 정치를 향한 힘찬 도약’이라는 모토가 갖는 의미는. = 동아리는 대학 안에서 자체적으로 생산과 창조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생산의 주체들이 사회적 억압에 갇히지 않고 정치의 주체로 서야한다.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회가 아닌, 일하는 사람 즉 노

동자 민중들이 자신의 이해를 위해 투쟁하는 것이며, 학생들 역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대항하는 것을 말한다. - 15대 동연을 평가한다면. = 동연이 학생회로서 학생들의 참여를 많이 이끌어냈다. 예년에 비해 학생들과 함께 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학생들의 대리가 아닌 대표기구로서 학생들의 중심생각이 많이 드러나지 않고 묻혀버린 것 같다. -전체 동아리 대표자 회의(이하 전동대회) 활성화 방안은. = 61개 동아리들간의 활발한 소통을 위해 전동대회를 통한 개별동아리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이다. 또한 동아리들과 LAN 선을 통해 의견을 나누고 함께 소식지도 발간하는 등의 사업도 함께 할 생각이다. -앞으로의 포부를 밝힌다면. = 동아리연합회가 마치 하나의 동아리처럼 개별적인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아리지역 학생들과 함께 토론하고 그것을 녹여낼 수 있는 동연이 되겠다. 또한 동아리 곳곳에 동아리 활동의 풍부함과 즐거움 등을 알리고 모든 학생들과 나눌 수 있게 열심히 할 것이다. 김진아 기자 ring@cakra.dongguk.ac.kr

교직복수전공·부전공 이수

■ 교직복수전공

1. 공통사항
1) 이수자격 : 복수(학위)전공자로 선발된 사범대생 및 교직과정이수자
2) 이수범위 : 사범대학 학과 및 교직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학과(전공)
3) 신청방법 :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학위복수 전공신청으로 대체함.
2. 이수학점
1) 복수전공학과 표시과목 관련 교직기본이수영역별 대체교과목(9학점이상)과 전공학점 42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함.
2) 교직과목이수 : 주전공 교직이수시에 취득한 교직과목은 복수전공을 이수할 때에 이미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재차 이수할 필요가 없으나, 교직과목 중 복수전공학과 의 교과교육론 및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은 별도로 이수하여야 함.
3) 비사범계 학생은 복수전공학과 의 취득평점평균이 80점(B9)이상 이어야 함.

■ 교직부전공

- 1) 이수자격 :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이수자
2) 신청시기 : 99. 11. 22(월) ~ 11. 26(금)
3) 신청방법 : 부전공 이수 신청자에 부전공학과 주입교수 합의를 받아 사범대학 교학과에 제출함.
4) 부전공학과 교직기본이수영역별 대체교과목(9학점이상)과 전공 21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함.
5) 교직과목중 부전공학과 교과교육론 및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은 별도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6) 비사범계 학생은 부전공학과 취득평점평균이 80점(B9)이상 이어야 함.

■ 기타유의사항

- 1)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이 교직과정을 이수하였을 경우 교원자격증 발급이 불가함.
- 2) 교직복수전공 및 부전공을 이수하여 교원자격증 발급요건을 갖추어도 주전공 교직이수과정이 교원자격증 발급요건에 미달되었을 경우는 교직복수전공 및 부전공 자격증 발급이 자동 취소됨.
- 3) 교직복수 이수자중 이수학점이 복수전공 학점에는 부족하나 부전공이수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는 부전공 이수를 자동 인정함.
- 4) 교직복수전공 및 부전공을 동일학과에 신청한 자가 교직복수전공 자격증 발급요건을 갖추었을 경우는 별도로 부전공 과목표시는 하지 않음.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접수

2000년 2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아래와 같이 접수합니다.

1. 대상자 : 2000년 2월 졸업예정자 중 비사범계 교직과정이수자

2. 자격

- (1) 학적이 정하는 졸업요건을 갖춘 자
- (2) 교육부에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그 명단이 제출된 자
- (3) 교직과목 20학점, 전공과목 42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표시과목 관련 기본이수영역별 상응과목을 이수한 자로, 교직과목 및 전체 전공과목의 평균성적

3. 접수기간 : 99. 11. 15(월) ~ 11. 17(수)

4. 제출서류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소정양식)

5. 교부 및 접수처 : 사범대 교학과

6.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는 자는 교원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으니 대상자는 유의하기 바람.

만해석좌교수 초청강연회

- 99. 11. 10(수) 새로운 세기의 詩 / 신경림 만해석좌교수

- 99. 11. 17(수) 민족문학을 통해 본 20세기 / 조정래 만해석좌교수

1. 시간 : 오후 4시 ~ 6시(16:00 ~ 18:00)

2. 장소 : 명진관 (A204)

서울캠 국어국문학부

동계 사회교육실습 신청

99학년도 동계 사회교육실습 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대상자는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사회교육전문요원과정 이수신청서를 제출한 3, 4학년 재학생
2. 접수기간 : 99. 11. 9(화) ~ 11. 12(금)
3. 접수처 : 사범대 교학과(신청서 사범대 교학과 비치)
4. 실습기간 : 겨울방학중 4주간

서울캠 사범대

서울캠 사범대

본관 부지, 유물발굴작업 방치 논란

학생 및 신도들의 불편 가중 ... 빠른 시일내에 작업 마무리돼야



본관부지 유물발굴 현장이 그대로 방치돼 학생 및 신도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유물발굴을 위한 3개월 간의 시굴작업이 지난 3일 마무리됐으나 복구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학내 구성원들 사이에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내년 2학기초 작업에 들어갈 본관

벤처창업보육센터, 2차 입주업체 모집

입주업체 교육 및 연수 등 본격적 지원예정

벤처창업보육센터(소장=황운식·회계학 이하 창업센터)는 새로운 우수업체 발굴을 위해 오는 16일까지 제 2차 입주업체 모집을 받는다.

창업센터 측은 "1차 입주신청업체 중 선정되지 못한 업체는 사업계획서 및 시제품을 보완한 후 재응모 할 수 있으며 1차 입주신청시 제출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해유발업체 및 금융 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업체 또는 대표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며, 동반입주 인력은 5명 이내로 한다.

비구수행관 석림원, 완공율 95%

오는 11월 말경 준공식 후 입주가능

석림회(회장=계현·선학)는 지난 3월에 가진 가공식 이후 꾸준한 모금 활동으로 마련된 10여억원으로 신축하고있는 석림원이 조경공사만을 남겨두고 현재 95%가 완공됐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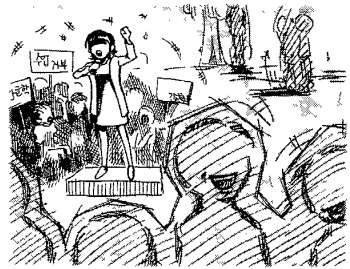
이번에 신축되는 수행관은 3백66평 규모의 대지에 △반지하 1층=여가활동을 위한 체육시설 구비 △1층=법당 및 식당 △2층=교수, 사감, 석림회장실 및 도서관 △3층=일반 비구스님 수행관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겨울 계절학기 수업
1. 개설대상 교과목 : 99학년도 1, 2학기 개설 교과목 및 계절학기 전과목 (단, 실험실습 교과목은 제외) 2. 수업일정 : 1999. 12. 20(월) ~ 2000. 1. 8(토) 16일간 (공휴일 제외, 토요일도 수업을 실시함) 3. 강좌개설 기준인원 가. 전공 및 교직과목 : 7명 이상 나. 기타 모든 교과목 : 10명 이상 4. 수강자격 및 신청학점 가. 수강자격 : 99학년도 제 2학기 재학생으로서 (1) 조기졸업 희망자, 재수강자 (2) 서울캠퍼스와 경주캠퍼스간의 학점교류 희망자 (3) 복수전공 희망자, 편입학자 나. 신청학점 : 6학점 이내 (매 계절학기의 취득학점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5. 성적처리 가. 계절학기 수업에서 취득한 성적은 졸업학점에만 포함하며, 장학생 선발 및 학사징계와는 무관함. 나.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함. 6. 수강신청 가. 수강신청기간 : 99. 11. 10(수) ~ 11. 12(금) 3일간 나. 수강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교무처 학사지원실 다. 제출서류 (1) 계절학기 수업 수강신청서(소정양식) 1매 (2) 사진 1매(3cm×4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라. 수강료 (1) 개설 교과목 1학점당 ₩65,000 (3학점과목 수강시 ₩195,000) (2) 개설 교과목의 특성상 수업에 필요한 부대경비는 수강자 자비부담 7. 개설대상 교과목 확정발표 : 99. 11. 17(수) 8. 수강신청 정정기간 가. 기 간 : 99. 11. 18(목) ~ 11. 19(금), 2일간 나. 정정대상 : 최초 수강신청후 폐강, 시간중복의 사유발생시에 한하여 가능 9. 수업시간표 발표 : 99. 11. 23(화) 예정

교무처

동약로

신뢰



“우리는 수업을 받고 있다”, “교수님을 돌려달라”

지난 1일 경주캠퍼스 원효관 중정. 머리에 흰 띠를 두른 여학생들이 찬바람이 세차게 얼굴을 스치며 지나가는 추위 속에서도 가녀린 목소리를 모아 일제히 구호를 외쳐대고 있다.

그들 주위에는 사방으로 ‘간호학과 비상대책위원회’라 적힌 플래카드를 높이 치켜든 여학생들과 원효관을 오가는 학생들에게 전단지들을 배포하는 같은 학과인 듯한 학생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중정을 지나가는 한 학생에게 간호학과 학생이 다가가 ‘간호학과 교수총원 문제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라며 전단지들을 건네는 모습이 눈에 띈다. “무슨 일이지?”라며 전단지를 받아든 학생은 의아하다는 모습으로 그들을 지나친다.

‘학교측은 교수들의 일괄사표를 수리를 철회하라’는 학과 대표자인 듯한 여학생이 친 목을 가다듬고, 자신의 뜻을 여러 학생들에게 알리고 있다.

한쪽에서는 북을 치며 구호를 외치고, 다른 한쪽에서는 질서 정연하게 줄을 맞춰서 서서 주먹을 불끈 쥐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는 여학생들의 모습도 보인다. 누가 보더라도 단결된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금새 이들 주위에는 마치 무슨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생긴 양 삼삼오오 짝을 지어 지켜보는 일반학생들과 교직원들로 가득했다.

집회를 마친 후, 가두시위를 나선다는 학과 대표자의 말에 따라 질서정연했던 학생들 이 하나 뿔뿔이 흩어져 구호를 외치며 원효관을 빠져나간다.

총학생회장의 지휘아래 ‘교육개혁투쟁’을 외치던 그들은 진혼관을 지나 백상탑 앞에서 선전전을 벌이고, 원효관으로 되돌아와 조금 전보다 더욱더 목청 높여 울부짖는다.

어느 샌가 의과대 학장과 교수들이 학생들 앞에 모습을 나타내고, 이들의 집회를 지지하려하자 학생들은 더 거센 반발이라도 하듯 목청을 높인다.

1차 집회가 마무리되고, 4일 후 학교측과 간담회가 있던 지난 5일 학생들은 원효관으로 다시 모여 그들의 입장을 플래카드로 표현했다.

‘신뢰는 우리 같이 한 번 깨지면 불이 꺼집니다’

김미영 기자
candy@mail.dongguk.ac.kr

“내 아들의 명예를 돌려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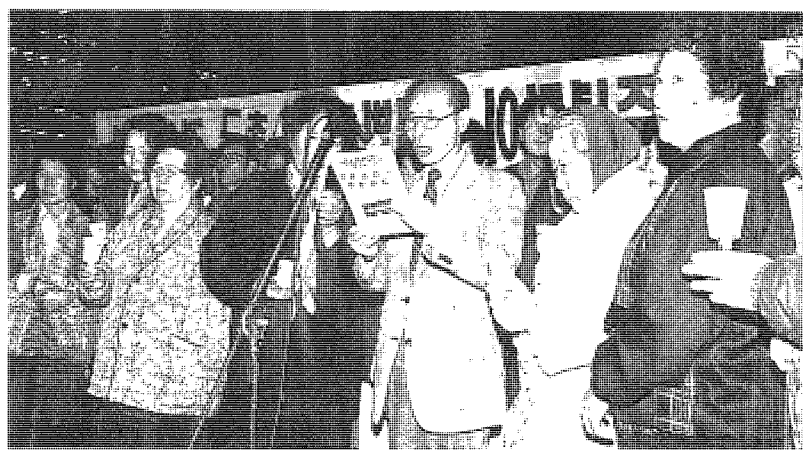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유가협 천막농성, 지난 4일 1주년 맞아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회장=배은심, 이하 유가협)가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 및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한지도 벌써 1년이 지났다. 국회의사당이 보이는 여의도 돌비다 위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진행한지 3백66일째를 맞이한 지난 4일 유가협은 천막농성 1주년 맞이 기자회견 및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오전 11시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가협 배은심 회장은 “독재정권과의 싸움에서 자신의 몸을 불사르며 마지막까지 이 땅의 참 민주를 실현하고자 한 우리의 고귀한 열육들의 명예가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이 땅의 현실이 가슴 아프다”며 “그들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되고 의문의 죽음이 낱알이 밝혀지는 날까지 물러섬 없이 싸워 나갈 것”을 결의했다. 또한 민가협 임기란 상임의장은 “한나라당 청사가 마구 보이는

이곳에서 매일 아침마다 출근 투쟁을 하는 우리의 외침을 듣지 못했을 리 없다”며 “국가보안법 개정마저 가로막는 한나라당은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민족민주열사의 명예회복 및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조속한 법규 제정과 국가보안법 완전 철폐, 양심수 전원석방, 정치수배 전면해제, 양심수 군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할 것을 정부당국과 정치권에 요구했다.

이어 오후 4시에는 특별법 제정 촉구집회가 열렸다. 오종철 전국연합상임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부정하고 악독한 권력으로 숨겨진 아들·딸들이 조금이라도 양양한 민주화와 통일에 대한 명예회복과 싸울만 한 주검이 돼서 돌아온 자식의 죽음에 대한 규명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법제도와 해달라는 것은 상식적인 요구”라고 주장하며 “20세기 마지막 정기국회는 정략싸움으로 날썬 줄을 모른다”며 현 시기



한나라당, 국민회의, 국회의를 경유하는 촛불행진에 앞서 국가보안법 폐지와 특별법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국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한나라당, 국민회의, 국회의를 경유하며 평화적으로 진행하려 했던 촛불시위는 5백 여명의 경찰

의 저지로 인해 무산되었으며, 그 과정에 참가자들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진기 기자 ring@cakra.dongguk.ac.kr

99 노동자대회 · 민중대회 13일부터 양일간 여의도공원에서

‘99 전국노동자대회 및 제1차 민중대회’가 오는 13일부터 이틀간 열린다. ‘생존권 사수·주 40시간 노동쟁취·국가보안법 철폐’를 모토로 내건 노동자대회는 13일 저녁 7시 중앙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전야제를 갖고 14일 오전 11시 여의도 공원으로 장소를 이동해 분대회를 진행한다. 이어 오후 1시부터 ‘생존권 사수·경제주권수호·농가부채 해결’ 등을 내세운 민중대회가 개최되고 오후 3시부터 △여의도 △마포대교 △공덕동 로타리 △만리동 고개 △서울역을 경유하는 행진을 벌인다.

SOFA개정을 위한 국민행동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과 양민학살 진상규명 촉구대회가 오는 9일 오후 2시 미대사관과 종로구청 뒤 대한재해복합공사에서 열린다.

민주노동당(준) 강령 시안 공청회

통일 민족사를 향한 지침서를 만들자



민주노동당 강령시안 공청회가 지난 3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기존 강령이 너무 급박하게 만들어져 대중 참여 부족, 부분별 강령간의 유기적 연관성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강령기초위원회로 있는 안병국 교수(카톨릭대 국사학)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공청회는 각 부문의 강령기초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초하 총부대(철학) 교수, 장상환 경상대(경제)교수, 조현연 한국정치연구회 연구위원, 본교 강정구(사회학)교수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번 공청회에는 민주노동당(준) 창당에 관심을 지닌 학자, 노동자, 학생 등 1백 여명이 참여해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비판으로 열린 자리가 됐다. 이와 관련해 안병국 교수는 “강령의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서로의 입장 차이가 크다”며 공청회가 끝난 후에도 통신과 팩스 등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임을 밝혔다.

발제 1. 이념 - 유초하 교수

- 현재 강령은 자본주의에 대한 반대를 명확히 하고 사회주의의 이념과 전통을 계승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또한, 현실 사회주의와 사회민주주의 모두 비판하고 있다.

이념은 강령 전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전문의 제목을 자유, 평등, 연대로 제시하고 있다. 자유·평등·연대는 원칙적 이념이지 사회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이는 상징적 지향, 사상의 원칙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

발제 2. 경제 - 장상환 교수

- 현 강령은 현재 심화되고 있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함으로써 올바른 경제체제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역사적인 총괄 평가를 통해 사회주의적 원칙과 정신을 계승하고, 이것에 입각하여 적극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소유권을 집단적·국가적 소유로 일원화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전체가 개개인의 자격으로 기업의 경영과 분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벌과 대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구조개편을 통해 기업 경영에서 민주를 이뤄내야 할 것이다.

또한, 주식시장에서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주식과 채권의 양을 제한해야 할 것이다. 공기업 구조조정의 경우 공익성이 높은 기업은 공기업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고, 기업성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은 국민기업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제 3. 정치 - 조현연 연구원

- 현 강령은 민주주의의 심화와 확산을 중심으로 하는 진보정치를 목표로 한다. 진보정치의 구체적 상은 서구식 자유주의나 현실 사회주의가 아닌 오늘날의 현실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 민중이 정치의 진정한 주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참여민주를 추구하는 대의정치와 민주변혁을 추구하는 운동정치가 지속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또한, 인간의 창조성이 구속 없이 발휘될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 조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전쟁을 반대하고 진정한 평화를 추구하며 적자생존을 기본 원리로 하는 자본주의와 비인간·반이성적 정치를 극복해 진보적 인간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을 지향한다.

발제 4. 통일 - 강정구 교수

- 장기적 정세전망을 바탕으로 우리가 통일을 위해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기초로 강령을 작성했다. 2020년~30년경 중국의 GNP가 미국을 능가하면 동북아에 신냉전 체제가 도래할 것이다. 이러한 외적조건 때문에 통일은 매우 시급한 문제이다.

하지만, 남과 북의 비대칭적인 경제수준과 적대관계 그리고 이로 인한 통일외의의 미성숙때문에 북한을 내부식민지화 할 우려를 갖고 있다. 따라서 외적조건을 감안한다면 통일을 서둘러야하나 내적 조건과 연합함으로 인해 통일을 미루어야 하는 통일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동북아 신냉전이 도래하기 이전에 우선, 연방제에 의한 부분통일을 완수하고 남북경제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

토론 1. 김성구 한신대 교수(경제부문 중심)

- 강령시안은 민주적 사회주의를 지향한다고 했는

데 민주적 사회주의와 민주적 경제체제의 연관이 어떻게 되는가? 이는 경제체제를 구성하는 소유, 조절, 통제의 형태가 각 부문 강령에 다르게 서술되어 있어 어떤 사회체제와 어떤 사회구성을 지향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공공성이 높은 기업은 공기업화하고 기업성이 높은 기업은 민영화해야 한다는 것은 사회적 소유, 조절의 개념에 자본주의의 이념을 더한 것이므로 혼란스럽다. 또한 공기업과 민주적 참여기업과의 차이는 국가의 소유 지분 정도와 소유주의 참여 여부에 있으므로 민영화에 대한 문제는 사소할 수 있다. 하지만 대표적인 불로소득 수단이며 투기 수단인 주식회사제도가 착취 사회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민주적 참여기업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정점을 왜곡할 것이 아니라 재벌 기업과 공기업을 공기업화 할 것을 명확히 밝히 공기업의 민영화를 저지하고 공공부문의 확장을 요구하는 것이 올바른 대안이라 하겠다.

토론 2. 김영옥 한국노동운동협의회 조직위원장

- 정치부문을 국가의 주권을 의회에 넘겨줬던 역대 정권에 대한 성격을 규명하고 자주·민주·통일을 명확히 정치노선으로 해야한다. 경제부문은 정치경제학을 다루기 이전에 당면한 한국경제의 현실에서 부각되는 심각한 외화자본으로부터 민족 경제를 사수하는 관점에서 정책대안을 세워야 할 것이며, 군사부문의 일방적 군비감축이 아닌 자주국방을 중심으로 민족의 운명이 의제의 층구에 달려 있는 현실을 시급히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정리 = 사회부

기타 토론

1. 강령에서 말하는 노동자는 정규직 남성 노동자를 말하고 있다. 또 강령에서 말하는 주 35시간 노동제가 비정규직 노동자와 가사노동을 하는 여성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러한

것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기에 현 강령은 상당히 추상적이라 보여진다.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에 재학중인 학생)
2. 최근 대우처리문제를 두고 차액종업원주주제로 인해 노동자들의 입금이 삭감되었다. 실제로 종업원 주주제도가 이름다 말할 수 있는가?

이제 병원도 선택의 시대입니다 - 내 집처럼 편안한 동국대학교 ‘강남한방병원’으로 오십시오

한방과 양방 협진 / 최우수 의료진 / 첨단의료 시설 등 최상의 진료 서비스

동국대학교 서울 강남한방병원 개원



한국불교 1천6백년, 민족의 등대지기 1백년. '동국'의 향기가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에는 자비심전에 앞장섭니다. 중생이 있는 곳에 불교의 손길은 와 있어야 하듯 중생이 아프면 불교가 앞장서서 치유해야 합니다. 그 맨 앞에 동국대학교 의료원이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의료원은 이러한 부처님의 자비정신으로 인술을 통하여 중생을 구제하는데 앞장서기 위하여 경주한방병원, 경주병원, 포항병원, 분당한방병원, LA 로얄한방병원등을 개설, 운영한데 이어 마침내 서울 한복판에 또 하나의 역사 - 강남한방병원의 문을 열었습니다. 건강과 장수는 우리 모두의 희망입니다. 인간화·철단화의 바탕 위에 한방과 양방이 어우러진 21세기 열린 병원.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부속 서울 강남한방병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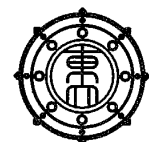
■ 진료개시 : 1999년 11월 1일
■ 개 원 식 : 1999년 11월 11일 오전 11:30



진 료 과 목 안 내		진 료 과 목 안 내	
진료과	진료교수	진료과	진료교수
내 과	이 원 철 정 지 천 임 성 우	재 활 의 학 과	이 명 중
신경외과	구 병 수	부 인 소 아 과	아·이비인후과
침 구 과	김 갑 성 이 승 덕		

진 료 과 목 안 내	
진료과	진료교수
재 활 의 학 과	이 명 중
부 인 소 아 과	아·이비인후과

진 료 과 목 안 내	
진료과	진료교수
재 활 의 학 과	이 명 중
부 인 소 아 과	아·이비인후과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 SINCE 1906

경주병원 (051)746-9300 / 포항병원 (052)273-9111 / 경주한방병원 (051)770-2377
분당한방병원 (0342)710-9700 / 강남한방병원 (02)3416-9700 / LA동국로얄한방병원 (213)487-0110

동국의료원은 부처님의 자비정신으로 인술을 통하여 중생을 구제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친절환 간호로 봉사하며, 서로 화합하고 연구 노력하는 의료인으로서 국민보건 향상과 조국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이념으로 합니다

21세기 농업정책의 방향

논단

장기적 계획 통해 농업 경쟁력 키워내야

UR 이후 WTO체제 출범과 OECD 가입은 우리 나라의 선진국 진입을 위한 진통과 성과라고 본다. 그러나 UR 파고를 넘지 못한 우리 농산품 시장개방이 취약하고 낙후된 농업산업의 골때에서 가져다준 기록하고 엄연한 현실은 그 동안 경제·사회정책과 그리고 기술인력개발에서 소외된 농업과 농촌에 대한 편협적 산업사회의 결과이다.

오늘날 빈약한 농업생산기반과 유통구조에서 농어촌 지역산업의 구조적 결함까지 함께 시달리고 있는 농업 농촌을 농업정책적 방향전환과 대책 없이 국제시장에 방치한다면 우리는 또 한번 많은 경제·사회적 마찰과 진통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우리는 농업구조개선사업 등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농촌의 경제·사회적 공동화와 도시사회의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비용을 경감시키는데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농업 농촌문제는 경제적 원리와 비교우위성 원리로 해결할 수 없는 특성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일수록 일찍이 경제·사회보장정책으로 농업과 농

촌을 보호하여 왔으며 비농업부문과의 밀접한 산업연관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역종합개발 및 지역경제의 공간질서를 소홀히 하지 않았던 것이다.

오늘날 우리 현실에서 보면 21세기 지역개발 정책의 최상 목표는 어느 지역에 서나 동등한 삶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지역균형목표달성에 있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서 농촌지역과 농업이 도시와 비농업과의 상호보완적이며 완충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농촌종합개발계획이 절실하다.

주요 정책방향은 물론 자생력을 갖는 지역특화농업육성과 농업관련산업의 조직화에 있다. 또한 농촌지역 인구보존과 여행객 유지는 농업정책과제 뿐만 아니라 노동 및 취업정책, 공공 및 민간서비스 공급과 도로 및 교통정책과제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의 자생력과 농업산업의 유기적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장 기본요소가기도 하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특화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농촌 인구보존을 위해서는 농업관련산업의 지역임지조각개선, 특히 하부구조(INFRASTRUCTURE)

를 우선 공급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개발정책의 기본 틀은 농산물 생산 기능만이 아닌 농촌의 기능인 주거, 생산, 휴양 및 산업임지로서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지역개발 및 지역산업 육성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역특성에 적응된 환경친화적 농업과 농업관련산업 특히, 식품가공 및 제조산업 육성은 농산물의 고부가가치와 상시적농산물수급에 크게 기여 할 것이다. 농업구조 개선책은 농업 농민에 국한된 사업만이 아닌 농촌지역주민 모두의 경제 사회적 생활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포괄적 정책사업과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예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장기적 토지이용 계획수립과 이에 따른 근린 및 산업시설 용지공급 확대, 주거환경 및 경지정리 사업, 농산물 품목별 수형·수직적 조직화와 전문화, 물류 시스템 도입 그리고 농업내의 농지소유권 보호와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 유통성 향상과 동시에 농지 경작권의 완전개방을 통하여 자본력과 기술력이 우수한 비농민의



유 덕 기
생자대
생명자원경제학과 교수

영농기여 확대 그리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 및 장기적 법적 보호 등이다. 특히 농지이용

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농촌환경 및 자연경관보존을 위해서는 경작자의 농지관리 의무화와 보상금 제도 등이 요구된다고 본다. 또한 농업 및 농촌지역경제의 이윤 창출은 농산물 생산과 소비자 욕구충족을 위한 농가기업의 마케팅 능력개발과 품목별 지역적 물적 유통의 조직화에 있다.

농촌지역개발과 농업구조개선은 결국 잠재된 농업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국민식품공급의 안정과 총족이란 국민경제적인 농업과제를 달성할 수 있는 건전한 지역농업구조와 이를 통한 공간적 동등한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데 있다. 건전한 농업구조는 물론 농민의 경제활동을 통하여 물질적 부분 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본생존권이 장기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 경우에 가능한 것이다.

사설

정치판과 고스톱

흔히들 우리 정치판을 고스톱에 비유하곤 한다. 요즘 돌아가는 모습을 본다면 이것이 무슨 속된 비유냐고 묻어 따져 묻는 이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고스톱은 무슨 패를 들고 있느냐와 그 패를 언제 내는가 승패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정치판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최근 언론문건과 관련된 공방만 보더라도 이는 분명해 진다. 누가 얼마나 많은 쪽로 문건을 보유하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며 그것을 사용하는 시기 역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패를 과장하기도 하고 혹은 숨기기도 한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전력을 노출시키지 않고 허를 찌르겠다는 생각인 듯하다.

이러한 정치적 공방외에도 정국안정이나 민심수습용으로 이러한 패가 사용되기도 한다.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선거때만 되면 터져 나오는 간첩사건은 우연으로만 보기에 너무나도 우연스럽다는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다. 그리고 정치적 문제로 국민들이 분노할때마다 무언가 색다른 이슈가 터진다는 법치 또한 법적으로 보기에는 역시 너무 우연이 많이 작용한 듯 하다.

요즘 야권 일각에서는 "우로비 사건 때는 신창원이 잡혀더니, 언론문건 사건이 터지니까 이근만이 잡힌다"는 것은 무언가 공작이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터져나오고 있다. 물론, 황당하다면 황당한 억측일 수도 있지만 한번쯤 생각해 볼만한 일이다. 많은 사람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계속해서 정치적 공방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과거에도 그랬다는 것과 현 정치판 또한 과거와 별 달라진 것이 없다는 두가지 근거로부터 도출해낸 결과이다.

현재 우리에게는 국내외적으로 시급한 사안들이 산적해 있으며 이러한 위기를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재계와 그리고 민중들이 똘똘 뭉쳐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발 그러한 공방만을 할 것이 아니라 넓게 보고 대의를 위해 일해달라고 말해야 함이 순서일 것이다. 하지만 '현 정치권은 불능'이라는 말이 보여주듯 그러한 말은 항상 때아리로서만 울려 퍼지곤 한다는 것을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알 수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발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만이라도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경주캠 학생회의 과제

웃것을 여기게하는 추운날씨와 함께 올해도 어김없이 학생회장 선거철이 다가왔다. 아직 총대의원회를 제외하고는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곧 후보자들의 유세소리로 온방울이 가득할 것이다.

대학의 학생회장 선거는 대학은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의미를 가진다. 먼저 그 시대 학내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보여줄 수 있는 단적인 예가 될 수 있겠고, 학생 대표자들이 다음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장이 될 수도 있겠다. 또, 일년 동안 활동해왔던 학생대표자들을 평가하는 자리 의미도 있다.

그러나, 현 학생회의 모습을 뒤돌아 볼때 학생회의 심각성을 다시한번 생각할 수 밖에 없으며 앞으로 다가올 학생회장 선거가 얼마나 위와 상황에 부합할지 걱정이 앞선다. 우선, 올해 학생회는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중구난방식으로 자기계를 사업에만 치중하였고 이마저도 제대로 행하지 않은 단체 및 자치기구가 태반이었다. 다시말해 학생들을 대변하기 위한 장기적인 비전 제시나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거의 보이지 않았으며 중

운위란 말 자체가 무색해질 정도였다. 또, 학생회 활동을 정리하고, 다음 학년도를 책임질 선거가 눈앞에 있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학생회 임원들의 무관심과 늦은 감사로 인해 4분기 학생회비가 아직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 물론, 학생회 활동을 경제적인 부분에만 비추어 말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서야 지급되는 학생회비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학생들에게 쓰여질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따라서 이번 학생회는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학생들에게 정확한 사업활동과 학생회비 내역서를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러한 일련의 작업없이 그냥 넘어가려 한다면 학생회는 변칙적으로 기성회비를 통한 학교측과 동창회비 일괄고지서를 강요해온 총동창회의 행동과 별반 다를것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학생회장 선거에 대한 관심저조와 학생회에 대한 비난은 날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선출될 학생대표자들마저 새로운 것들의 제시없이 과거를 그대로 답습하려 한다면 우리 대학은 언제나 추운 겨울이 될 것이 뻔하다.

일본의 유엔 상임이사국 가입 움직임

“전쟁에 대한 책임부터 인정하라”

원칙적 반대통해 국가적 차원 사과 받아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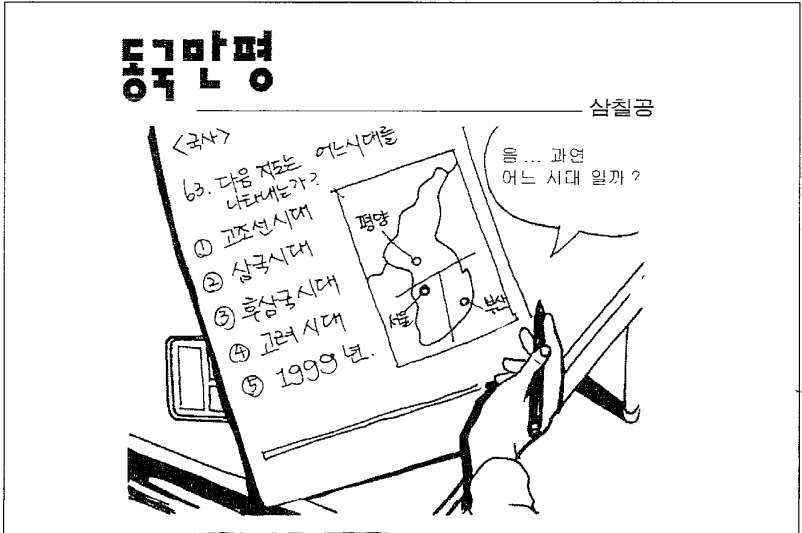
지난 1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와 게하르트 슈테더 독일 총리의 회담을 갖고 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될 수 있도록 공동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 노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구체적인 움직임을 시작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일본과 독일은 양국이 모두 2차대전의 주범이며 패전국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독일의 경우에는 전쟁에 대한 책임을 깨끗이 인정하고 피해국들에 대한 책임을 감수했고, 일본의 경우에는 아직 전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차이점을 지닌다.

지난 1일 LA에 위치한 일본계 화물운송회사인 '니혼 익스프레스 USA'에 근무하던 재미 한인 이명섭씨가 일본인들의 멸시에 못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발생해 국내 언론에 전해졌다. 이명섭씨의 일기장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음식을 먹고 이빨을 닦지 않아 김치나 마늘냄새가 심하다" 또는 "조선징은 아반인이다"라며 일본 특유의 이치메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단적인 예로 그칠지 모르지만 아직도 일부 일본인들은 한국에 대한 우월감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 하겠다.

문제는 이러한 생각을 가진 인물들이 일본 지도층에도 상당수 포진해 있다는 점이다. 최근 '일본의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회장인 니시오 간지 교수는 저서인 '국민의 역사'라는 책에서 "일본은 한국에 아무런 나쁜짓을 하지 않았다"는 망언을 했다. 비근한 예로 지난 6월 일본 자민당의 가메이 시즈카 의원은 "일본이 2차대전 전이나 그 와중에 아시아 주변국을 침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본 지도층 인사들의 망언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에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 지는 것이다. 우리가 총선을 앞두고 표를 끌어 모으기 위해 지역감정을 자극하듯, 일본의 경우에도 선거를 앞두고 표를 모으는데 이러한 발언이 주효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만큼 아직 일본인들의 근간에 깔린 정서에는 한국인들은 열등하다는 생각, 그리고 식민통치국가의 국민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일 양국간의 문제를 접어두더라도 최근 일본의 해에 대한 발언은 세계평화를 지켜야 할 유엔 상임이사국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해준 대목이다. 세계 평화에 치명적인 위협을 안겨 줄 핵을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보유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일본의 현주소인 것이다.

이러한 것들로 미뤄볼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입장이 무엇인가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우리 정부는 외교적인 채널을 통해 일본의 유엔 상임이사국 가입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동아시아를 제외한 서구와 제3세계 국가들 사이에서 일본이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무조건적인 반대는 오히려 우리의 입장만 난처해 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도 간파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일본에 대한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펴되 일본으로부터 전쟁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솔직한 책임 인정과 사과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아낼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남대철 기자
eniac97@cakra.dongguk.ac.kr

TTL, 혼자쓰기 너무 어렵지? 지금 친구에게 얘기해보라.

친구가 TTL에 가입하면 증거용을 함께 학습 있었어.

소중한 친구에게는 TTL을...

TTL 추천합니다

TTL교객이 추천한 친구가 TTL에 가입하면 문화특권을 누릴 수 있는 TTL가맹점 상품권 두장! 또는 SK텔레콤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시 현금대신 쓸 수 있는 011상품권이 두장!

- 행사기간: 1999년 10월 15일(금) ~ 1999년 12월 15일(수) * 추천기간은 98년 10월 15일(금) ~ 99년 12월 14일(목)
- 행사내용: TTL교객이 신규교객을 추천하여 행사기간 내에 파추현이 TTL에 신규가입하면 신규교객 1명당 TTL가맹점 상품권 혹은 011상품권(1만원권) 2매를 드립니다. (추가 2명까지 추천가능)
- 추천방법: TTL교객 *파추현: TTLID/일지 (25세 이하 - 73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 추천방법: 전화 02-680-9000(화) 또는 080-5000-011(접수시간: 09:00~19:00/토 일 공휴일제외)/인터넷 추천은 TTL College (www.TTL.co.kr) 에 접속 *추천사 추천인의 이동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파추현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록
- 상품권발송: 2매(추천인용 1매, 파추현인용 1매) 모두 신규가입한 파추현의 요금장서 주소로 TTL카드의 함께 1개월이나 우편 발송!
- 꼭 확인하세요! * 추천등록은 파추현이 신규로 가입하기 하루 전까지 해야 합니다(가입일 추천하여 신규로 가입한 경우 제외)
- * 현재 사용중인 중인 교객 및 기존교객간의 추천은 제외되며, 스프레드에서 TTL로 전화 또는 종교대리점 및 방문영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행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또한 파추현이 신규가입후 30일 이내에 추천인과 파추현이 해지,영의변경,정지, 또는 스프레드11로 전량환할 경우에도 행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추천여부 및 상품권은 전국 SK텔레콤 D로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 상품권은 기존교객과 신규가입한 교객이 가입후 상품권 발송시점까지 본인 이름으로 계속 사용중인 경우에만 발송됩니다

신나는 대학교 TTL College의 깜짝 이벤트!

엔터테인먼트가 끊이지 않는 TTL College의 깜짝 이벤트!
"TTL추천합니다"에 참가하고 TTL College친화점으로 등록하면 1,100원을 추첨해서 브로치,책,택시전 CD-ROM을 준대! 지금 클릭 www.TTL.co.kr

내 지갑속의 알인 면허증 TTL Card

TTL에 가입하면 가입자에게 자동으로 발급되는 카드로 TG! Friday's, 롯데리아, 도미노피자, 배네치아 20~25% 할인!
전국 TTL가맹점 약국에서 1,500원 할인! OK Cashback가맹점 이용시 포인트가 적립되어 현금으로 돌려 받는 카쉬백 서비스까지 받을수 있는 TTL만의 멤버십 카드

■ 고객센터 (0)2-681-06 (0)~22 (0) * 서울 (02)6808-011,012/080-011-6000 * 부산 (051)5815-011,012/080-011-2000 * 대구 (053)4242-011,012/080-011-2000 * 진남 (052)3800-011 012/080-021-2000 * 대전 (042)2205-011,012

* 송남 (042)2200-011,012/080-041-2000 * 충북 (0431)2300-011,012 * 강원 (0337)7419-011,012 * 제주 (064)7433-011,012 * 휴대폰: 배덕 통신사 접속 (082)080-011-2382, 080-012-1282 * E메일: help@ttl.co.kr www.ttl.co.kr

다시, 11월이다.
매년 똑같이 겪는 11월, 학생들은
또 다음해를 준비하는 학생회를
건설하기 위해 선거를 하는 달이다.
그러나 이러한 '오래된 습관'을
학내외의 많은 사람들은 그리
반가워하지 않는 듯 하다.
새 천년을 앞둔 이시점에서
학생들은 다시 한번 선거라는
것의 의미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학생회 평가와 전망

학생이 주인되는 ‘자주적인 학생회’ 건설돼야 한다

정부의 학생운동 탄압·학생들의 무관심이 침체원인

2000학년도 학생회선거, 학생대중과의 연대가능성 높아

그래도 학생회 선거는 시작된다

다시, 11월이다. 매년 어김없이 다가오는 11월, 학생들은 또 다음해를 준비하는 학생회를 건설하기 위해 선거를 하는 달이다. 그러나 이러한 '오래된 습관'을 학내외의 많은 사람들은 그리 반가워하지 않는 듯 하다.
그것은 그동안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에 의해 직접 선출됐던 대표자들이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더불어 '뽑지도 않고 비난만 하거나', '뽑기만 하고 뒷집만 지고 있는' 대다수 학생들에게도 그 책임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전국의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선거라는 것은 무엇일까? 새 천년을 앞둔 이시점에서 학생들은 다시 한번 선거라는 것의 의미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침체를 거듭했던 지난 몇년간의 학생회모습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지난 몇년간 동악의 학생회는 어땠는가에 대해서 정리해보자. 동악의 학생회는 다른 대학의 학생회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민주화운동과정에서 나타난 것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80년대의 군사정권 시절에는 사회변혁운동의 전위조직인 '전투적 학생회'로서 강력한 정치투쟁의 모습을 보여왔고, 김영삼 정권 출범이후에는 '생활, 학문, 투쟁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김영삼 정권말기를 전후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극심한 탄압을 겪으면서 학생운동 진영내부는 분열과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속에서 동악의 학생회 또한 침체의 늪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95년에 진행된 96학년도 총학생회 선거에서 모두 3팀이 출마해 경합을 벌인 이후 실질적으로 모두 단독출마로 총학생회 선거가 치뤄지고 있으며, 단과대 선거 또한 후보자등록이 없거나 대부분이 단독출마로 진행되고 있다. 과나 학부의 학생회 선거는 그 정도가 더 심각하다. 이것은 평가와 정리를 바탕으로 한 동악내 학생회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만들어내고 있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로 나타난다. 사실 동악의 총학생회는 95년이후 특정계열의 학생회가 계속 말아오고 있다. 학생회가 이렇게 된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 중 가장 큰 이유라고 하면 바로 정부의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이다. 김영삼정권에 의해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은 김대중 정부들어서도 여전히

히 이적단체이다. 이로인해 단과대 이상의 선거에서 당선된 대표자들은 바로 수배자 신분이 되고 구속되면서 전과자가 되는 현실이다. 두번째로는 역시 앞서도 지적한, 학생들의 이기주의적인 무관심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탄압이 극심했던 96년과 97년이 지나면서 많이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그 흔적(?)은 곳곳에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요구된다. 지난 99학년도 동악의 학생회 또한 이런 모습을 잘 반영하고 있다. 학생대표자회의가 3년만에 성사되고 대의원총회가 성사돼 학생회직을 개정해내는 등의 긍정적인 역할도 있었지만 아직도 대중화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공동투쟁 움직임 보이는 2000학년도 학생회 선거

이러한 상황속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국대학의 학생회 선거는 학생회의 강화와 학생운동이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것은 현재 학내외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문제들이 학생들과 보다 밀접한, 괴리되지 않은 것들이 많고

또한 학생운동진영내에서도 공동으로 연대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크게 △교육관계법을 비롯한 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교육투쟁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한 등록금인상 저지투쟁 △국공립대의 민영화 반대 투쟁 등이며 각 학생운동진영에서는 공동의 정책을 제시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내년 학생회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러한 문제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캠 총학 선본의 한 관계자는 "현재 보여지고 있는 학내외의 상황은 학생회와 학생운동이 그동안 보여왔던 침체의 모습에서 상당히 벗어나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론은 역시 '자주적 학생회'의 건설

일반적으로 조직이라는 것은 인간과 인

간의 관계를 일정한 목적의 달성에 알맞게 체계화하여 그 구성원의 집단적 실천이 이루어짐으로써 일정한 목적을 실현하는 인간들의 결사체라고 한다. 우리 주위에는 이러한 성격을 가진 무수히 많은 조직이 존재한다. 학생회라는 조직 또한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되고 공동의 목표와 실천을 행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학생회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한해를 평가하고 새로운 출발을 함께 만들어가야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시 학생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학생들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갖고 진정한 자기들의 학생회를 건설해내는 그야말로 '자주적인 학생회'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말 그대로 학생회 선거가 학생들의 축제의 장이 되고 대중의 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전적으로 학생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유철주 기자

cowso@cakra.dongguk.ac.kr

서울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듣는다.

모순에 대항하는 학생들의 조직이 학생회다

학생회가 뭐하는 곳이나고 물을 때 단 한마디로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치투쟁을 위한 조직? 학생들의 복지를 위한 단체? 어떻게 정의를 내리든 그러한 정의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일 것이다.

학생회는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자주적 대중조직'이라고 이야기되어진다. 교육환경의 개선과 학생복지 등의 일상적 요구뿐 아니라 사회적 모순에 대항, 혁파하는 정치적, 사회적 요구까지 학생들의 요구는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복잡한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는 학생이라는 신분의 특성에 기인하고 있다. 진리를 탐구하며 그 과정에서 학고 안팎의 사회 모순에 눈떠가

며 그 모순에 대하여 도전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학생회는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고민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곳이다. 선거라는 과정은 이러한 학생회의 시작과 끝, 이음매인 것이다. 해마다 구성원이 바뀌는 학생회에서 특히 이런 선거의 과정은 새로운 학생회의 모습을 계획하고 지난 학생회를 평가하고, 학우대중에게 검증받는 중요한 과정인 것이다. 단순히 대표자를 뽑는 통과례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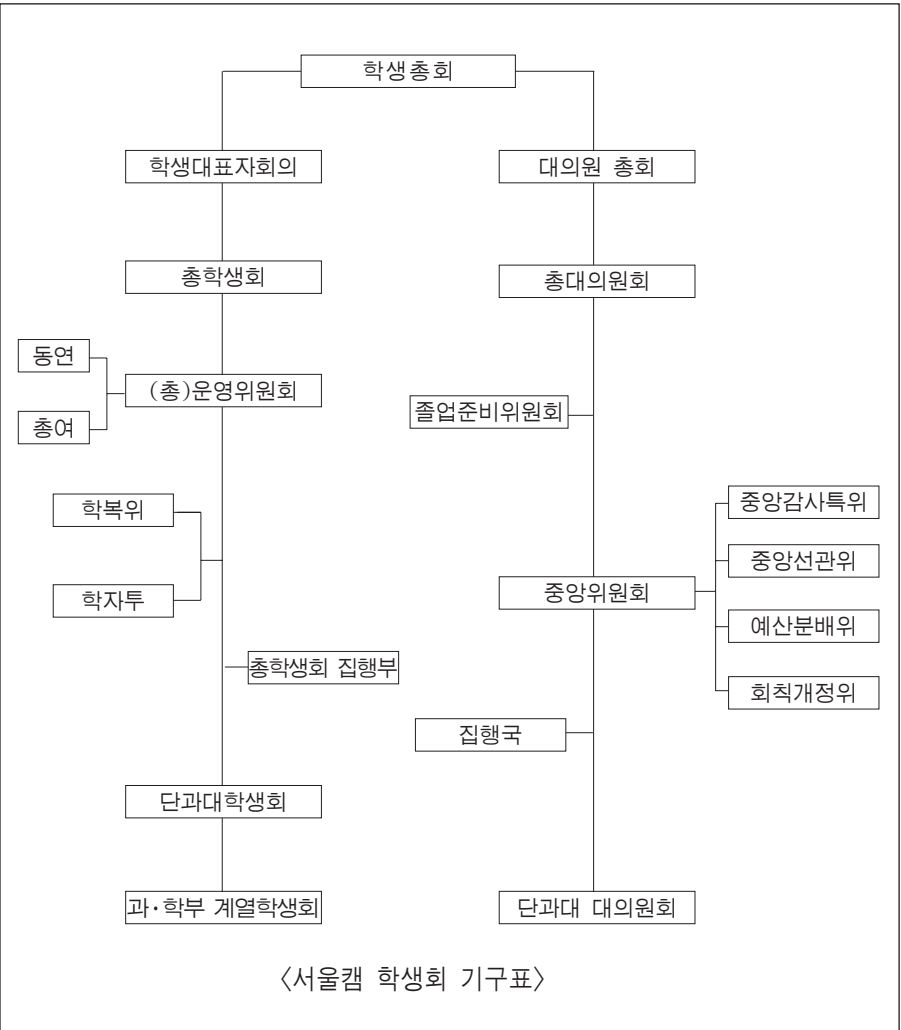
이번 '2000학년도 학생회 건설을 위한 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단과대 학생회 투표와 중앙기구 투표를 같은 날

짜에 진행할 예정이다. 갈수록 떨어지는 투표율에 대한 현실적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보다 동악 학우들에 대한 믿음이 우선시 되었다. 어떤 기구에 어떤 후보자가 나왔으며 그들의 공약이 무엇인지 정도는 학우들이 고민할 것이라는 믿음이 그것이었다. 후보자 공보집, 공동정책자료집, 현수막, 포스터 그 외에 후보자측에서 만드는 자료집들. 그것들을 유심히 보고 후보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하는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그것은 바로 1만 2천 학우들의 몫일 것이다.

최진범

(서울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영문 4)



민족동국 대학원 총학생회, 동대신문사, 제천농민회, 인쇄노조가 함께 했습니다.

무애선생의 학문과
창작과 생애

자타공인 ‘한국의 국보’ 양주동선생을 말한다



1. 무애 선생의 학문

무애선생의 학문은 그 방법으로는 한국 고어 연구였으며, 그 목적은 한국 고전시가 연구였다. 그리고 무애 선생의 학문을 대표하는 저서는 ‘사녀가전주’(후에 ‘고가연구’로 개칭)와 ‘여요전주’ 두책이다. 앞 책은 한자를 빌어 한자로 표기한 고려가요를 우리 현대어로 바꾼 것이다. 그런 목적을 달성하려고 이 두책은 책이름에 나타난 것처럼 사녀가(향가)와 여요(고려가요)를 전주(箋注·상세한 주석)한 것이다. 이 전주는 한국 고어 연구사에 새로운 지평을 연 것이고, 그 향가와 고려가요를 현대어로 바꾼 작업은 2천5백여년의 한국 문학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한 것이다. 무애선생이 학문의 방법으로 삼은 한국 고어연구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무애 선생은 향가와 고려가요의 주석을 하면서 한국의 상고어와 삼국시대어와 고려어의 표기체계와 문법체계를 수립하고 그 어휘론을 정립해 냈다. 그분은 이를 위해서 2백여종에 달하는 한국의 고서와 고문서는 물론이고 수많은 금석문까지 섭렵하여 일일이 그 논거로 제시하였으며, 중국과 일본문헌 7십여종을 동원하여 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무애선생의 이런 연구는 1930년대 중반부터 1940년대 중반까지 10여년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시기 한국의 국어학 연구동향은 문자와 음운, 어원과 어휘, 문법체계와 국어사 사료 연구에 경도되어 있었다. 당시 무애선생은 이런 연구동향을 주도하는 핵심축을 형성하면서 많은 선공(先功)을 남겼다. 이 무렵의 한국어학연구는 상당부분 일본인 학자들이 주도하고 있었는데 무애선생이 영문학 연구에서 국문학 연구로 전향하여 수많은 새로운 실적을 만들어냄으로써 명실공히 학문적 주도권을 회복하게 되었다. 무애 선생은 일본인 학자 소장 진평의 ‘향가 및 이두의 연구’라는 저서를 읽고 비장한 발원을 하고 민족적 결의를 다지면서 당시 우리 학계의 상황으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연구 실적들을 줄기차게 쏟아 내놓았다.

무애선생은 ‘향가연구의 회억(回憶)’이란 글에서 이 무렵의 결의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한민족이 망하는

것은 총과 칼에 의해서만 망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혁명가는 되지 못할 망정 빼앗긴 문화유산을 학문적으로나마 싸워서 빼앗아 와야겠다는 일념으로 연구에 정진하였다고 회고하였다.

이제 무애선생이 학문의 목적으로 삼은 한국고전시가 연구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몇가지만 살펴보기로 한다. 무애선생의 고전시가 연구업적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해독과 주석의 어학적인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그 밖의 것을 총괄하는 문학적인 연구이다. 전자는 앞에서 이미 거론하였으므로 후자만 몇가지 거론하기로 한다. 한국고전시가 연구에 있어서 무애선생이 세운 가장 큰 공로는 향가와 고려가요 전편을 시작품으로 해석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무애선생의 이런 공로로 인해서 상고시대부터 14세기까지의 한국문학사를 손조롭게 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향가와 고려가요 연구에서 최초로 작자와 내용과 형식을 유형화하고 그 유형별 특성을 규명해 냄으로써 한국 고시가 연구의 본질적 토대와 기반을 견고하게 마련하였다. 향가와 고려가요의 평설(評說)을 통해서 한국 고전시가의 문학적 우수성을 학계에 최초로 알렸으며, 한국 고전시가의 이미지와 구성미에 관한 논의의 단초를 마련하여 당시의 학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고어·고전시가 연구 ... 국문학자로서 독보적 위치

시인·비평가·수필가·번역문학가 등 팔방미인

특히 향가연구에서는 향가와 형식을 단형과 약형과 상형으로 분류 파악하고 10구체의 독립성을 주장하여 그 형식론을 정립하였으며, 향가의 문학적 성격 논의에서는 불교적인 면과 주술적인 명의 양면성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도술가, 사녀가, 사녀격, 향가의 어원을 밝혀 해명하고 사녀가를 장르 명칭으로 제시하였다.

2. 무애선생의 창작

무애선생은 당대 한국을 대표하는 국어문학자일 뿐 아니라 시인이며 비평가며 수필가며 번역문학자였다. 그리고 주목할만한 단편 작가였다. 무애선생이 처음 시를 발표한 것은 1920년대 일본 와세다대학 예과시절 백기만, 유엽 등과 더불어 ‘앞’이라는 회람잡지를 발간하면서부터이다. 그러나 무애선생이 시인으로 부상되는 것은 1923년 한국 최초의 본격적인 시 전문잡지인 ‘금성’을 발간하면서부터이다. 무애 선생은 1932년 그의 ‘조선의 맥박’이라는 시집을 펴내는 것으로 당시 몇 안되는 한국 현대시인의 반열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무애선생은 1백여편에 이르는 비평을 썼다. 무애선생의 비평은 1930년대 순수문학운동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서구문학에 대한 폭넓은 이해로 민족문학의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는데도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뿐아니라 범민족적인 문화노선을 수립하는데도 기여

를 하였다. 무애선생은 ‘인생잡기’를 비롯해서 많은 수필을 썼다. 무애선생은 전고적 수필과 수상적 수필의 영역을 새롭게 개척하고 정립해 내는데 기여한 수필가이다.

또한 무애선생은 동서고금의 많은 문학작품을 번역한 번역문학자였다. ‘시경’을 비롯해서 ‘영시백선’ ‘T. S. 엘리엇 시전집’ ‘A. A. 밀튼 수필집’ 등 중국과 구미문학의 작품과 비평을 번역 소개하여 한국문학사의 서술시각을 확장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리고 소설 ‘九十九번지’를 비롯해서 5~6편의 콩트를 발표하여 소설가로서의 재능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처럼 무애선생은 여러 방면에 걸쳐 풍부한 성과를 이루어냈다. 그 양적인 면에서 본다면 국어학 연구업적이나 고전시가 연구업적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이런 창작 영역의 것들이다.

3. 무애선생의 생애

무애선생의 생애는 앞의 학문과 창작활동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유년기와 청장년기와 노년기 등 3기로 나누어서 정리해 볼수 있다.

무애선생은 1903년 6월 24일에 태어나서 1977년 2월 4일 기세(棄世)하였다. 편의상 와세다대 예과에 입학하기 직전까지를 유년기로 보고 와세다대 예과 입학학서부터 50년까지를 청장년기로 본다. 그리고 60년대부터 기세하는 70대까지를 노년기로 보았다.

무애선생이 태어난 해는 갑오 경장후 10년이 되는 해이며 을사 보호조약이 맺어지기 2년전이어서 국가의 정세가 아주 어수선했던 때였다. 무애선생은 7-8세때 경술년 명국의 비보를 접하였다. 선생께서는 5세전후부터 3.1운동 직전 18-9세까지 한문 수학을 하였는데

이때 이미 남다른 재능을 인정받아서 소년훈장이 된다.

그 후 신학문에 뜻을 두고 서울로 와서 중등학교 속성과에 입학하여 영어와 수학을 공부하면서 많은 천재성을 발휘하였다. 이시기는 무애선생의 동양적 학문기반이 서양적 학문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였다. 와세다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 무애선생은 불문학과 영문학을 공부한다. 재학중에는 보들레르, 키이츠, 에머슨, 하이다 등에 심취하였으며 학부 졸업논문은 ‘하이다 소설의 기교론’이었다. 그리고 1928년부터는 대학교수로서 강의를 시작하는데 처음 10여년간은 영문학 교수와 시인과 비평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이후 1934년경부터 1940년대까지 10여년간은 향가와 고려가요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시기였다. 이 시기부터 다른 이들의 추종을 불허하는 국어국문학자로 부상되기 시작한다. ‘고가연구’와 ‘여요전주’를 펴내고 계속해서 주목할 만한 국어국문학 관계의 연구논저들을 쏟아냈다. 노년기는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적 논객으로서 방송계의 단골손님으로 자리잡아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렇게 하여 무애선생은 국어국문학 연구에 있어서는 무애학과를 만들어내고, 창작활동을 통해서는 시, 평론, 수필, 소설, 번역문학계에 기라성 같은 후진을 배출하여 무애사단을 만들어냈다.

임기중
문과대 국어국문학부 교수



무애 양주동 전집 완간

방대한 무애 업적 집약해



양주동 전집 총 12권이 완간된 것은 지난 1998년이였다. 이 책들은 무애 양주동(1903-77) 선생이 타계한지 22년만에, 또한 무애의 제자들이 ‘양주동 선생 전집간행위원회’를 조직해 발간에 착수한지 10년만에 완간된 것이다. 실로 무애의 국어사적, 문학사적 업적이 얼마나 방대한지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이 전집에는 국어국문학자이자, 시인이었으며, 수필가였고, 비평가였으며 번역문학가로서 다섯 사람의 몫을 한 몸으로 감당한 무애의 저서, 논문, 평론, 시문, 역서, 반안소설, 수필, 콩트, 강연원고 등이 수록돼 있다.

양주동 전집은 10여년에 걸쳐 분교 국문과 교수, 강사, 연구원, 대학원생, 학부생 등 거의 전원이 동원돼 만들어졌으며 무애가 활동하던 당시 인쇄술의 발달이 미진해 발생한 마모자, 마멸자, 벽자, 오자

등을 낱낱이 판독, 교정하여 간행되었다.

총 12권 중 1권은 1942년에 저술한 고가연구(古歌研究), 2권은 여요전주(麗謠箋注)로 무애가 고가연구의 속편격으로 1946년에 펴낸 것이다. 3권은 국학연구논고(國學研究論攷), 4권은 문주반생기(文酒半生記), 인생잡기(人生雜記)가 수록돼 있으며 지성의 광장이 실린 5권까지 지난 1995년에 간행되었다.

1998년에 2차로 6권부터 12권까지 완간됐으며 6권부터 9권까지는 무애의 시, 소설, 수필, 번역문 등 높은 평가와 함께 많은 찬사를 받았던 주옥같은 글들이 수록돼 있다. 한편 10권부터 12권까지는 1920년대 초부터 1970년대 말까지 무애가 신문과 사상지, 문예지 등에 투고한 글들이 모두 실려 있다.

양주동선생 전집간행위원장 임기중(국문학) 교수는 “앞으로 2차, 3차에 걸쳐 양주동 선생 전집을 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차 양주동 전집에는 무애의 업적에 대한 다른 학자들의 비평, 논쟁 등을 묶어내고 3차 양주동 전집에는 무애의 삶의 궤적을 되짚아 볼수 있도록 활동내용을 담은 사진, 육성기록 등이 실릴 예정이다.

김미경 기자
pink@cakra.dongguk.ac.kr

사회학과 20주년 기념행사

동대신문
생활광고

- 11월 10일(수)
 - 사회학과 설명회(13:00~15:00 BSC세미나실)
 - 개막제 (15:00, 동국관 앞 통일광장)
- 11월 11일(목)
 - 기념학술세미나(14:00~17:00 덕암세미나실)
 - 주제 : 한국사회학의 현황과 전망
 - 전체사회 : 조은(사회학)교수
 - 토론사회 : 양영진(사회학)교수
 - 발표자 : 성공회대 김동준교수-한국사회학의 현황과 전망
 - 가톨릭대 이시재교수-환경사회학의 현황과 전망
 - 한양대 윤영민교수-정보사회학의 현황과 전망
 - 토론: 강정구(사회학)·이건(사회학)·박찬용(사회학)교수
 - 학생세미나1 (18:00~20:00 정보매체센터 P402)
 - 주제 : 대학구조조정과 학회의 대응전략
 - 발표 : 사회학과 학술소모임 ‘새로운 사회연구회’
 - 영화상영(14:00~18:00, 동국관 사회학과 학생회실 앞)
 - 상영작 : 각각의 제국, 엑스티즌즈
- 11월 12일(금)
 - 외부초청특강(14:00~16:00 덕암세미나실)
 - 주제 : 언론의 사회적 의미와 역할
 - 발표 : 손석희 MBC 아나운서
 - 학생세미나2 (18:00~20:00 덕암세미나실)
 - 주제 : 전공학회의 가능성-학생회없는 대학사회를 생각하며
 - 발표 : 사회학과 학술부
 - 영화상영 (14:00~18:00 동국관 사회학과 학생회실 앞)
 - 상영작 : 매트릭스, 일본 애니메이션
- 11월 13일(토)
 - 체육대회(14:00~17:00 만해광장, 대운동장)
 - 사회학도의 밤(18:00 학술문화관 그릴)

제 20대 사회학과 학생회



전기를 아끼시다!
수업이 끝난 후,
강의실을 나올 땐
꼭 불을 꺼주세요.

동대신문사

김인호 (서울캠 도서관 수위)



<현>locet123@cakra.dongguk.ac.kr

주정순(인문과학대 중어중문학과3)



이영수(서울캠 야간강좌 총학생회장)

하기태(한의대 병리학교실 조교)

나카다 하시토(문과대 인문학부1)

주 정 순

이소라 기자

choya@mail.dongguk.ac.kr

A black and white portrait of Dr. J. H. Kim, a middle-aged man with dark hair, wearing a patterned sweater over a collared shirt. He is standing in front of a wall with some posters and a plant.

나카다 하시토

다음은
수술요법
으로 많
은 방법
이 있으
나 그중
가장 좋
은 것은 입원후
미취하에 치핵을 절제하
는 것이 좋다.



정병욱 교수
의과대 일반외과

소나기

고문 기술자 이근안

△정녕 이근안을
고문해 자백을
받아낼 사람은
없는가?
△이근안 난
너보다
잔인해.
너의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으면 넌
아주
고통스러울
꺼야.

△이:이근안
우선 너의
이름 뽑고
근:근육이 뒤틀리게 한 다음
안:안구를 눌러 버틸꺼야! 아프지 임마.
많은 사람들은 더 아팠다.
△이근안 그에게 물어보자. 가장 큰 고문
이 무엇인지. 그건 바로 그를 바라보는
모든 국민의 눈빛임을. 그것조차 깨닫지
못한 그는 가장 고문받는 인간이다.

△똑같이 해라!
△과연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가?
△WWF신기술! 공포의 관절뽑기!
한번에 KO!
△나쁜 시기!
△제집 놔두고 왜 큰집(?) 가려고 하지?
△사필귀정 - 법감정에 수반되는 "필요한
만큼"의 처벌은 있어야...
△자수한건데... -.-;
△우리 정치인들 정말 멋지다. '언론사찰'
건에 맞춰 '이근안'카드를 내세우다니!
맞벌작전!!
△쓰는게 고문이다.
△이근안은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이다(?)
그 시대에 벌써 전문직의 중요성을 깨닫
다니!
같은 영화를 찍어도 될 뚫...
△그에게서 살타는 비린내가 아닌 악마의
냄새가 풍긴다.
△시대가 낳은 악의 꽃
△그럼 이번주 부터 전원일기의 이장은 누
가?
△좋은 기술은 길이길이 남고 전수된다는
데 당신의 후계자를 혹시 숨겨두신건 아
닌지...
△이근안 당신은 어디서 이런 기술을 다
배워 오셨나요.
△이근안과 신창원의 공통점은 뻔뻔하다
는 것. 다른점은 국민들의 지지가 상반
됐다는 것.

TEL:22603491· 2
(0561)7702058
FAX:22791270
(0561)7702057
하이텔 ID:dgpress
나우누리 ID:동대신문
천리안 ID:dgupress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동국관 학생식당 차림표

월	생선까스(1300) 반계탕(1500)
화	한치회덮밥(1500) 김치스파게티(1300)
수	소고기볶음밥(1300) 해장국(1500)
목	떡볶이백반(1300) 참치김치덮밥(1300)
금	간통기(1500) 소고기덮밥(1500)

(단위:원)

상록원 학생·교직원식당 차림표

월	소고기떡볶음(1500) 부대찌개(3000) 불고기필라프(1500) 콩나물술밥(3000)
화	제육덮밥(1500) 해물전골(3000) 잔채덮밥(1300) 닭볶음(3300)
수	양념치킨(1500) 소고기국밥(3300) 하이라이스(1300) 초밥우동(3800)
목	오징어아게볶음(1500) 불난전골(3500) 비지릭수제비(1300) 이면수구이(3300)
금	돈까스(1300) 황태뽕배기(3000) 대구매운탕(1500) 망수육백반(3500)

(단위:원)

경주캠 학생상담실

홍보와 상담요원 확충으로 제구실해야

원효관 2층에 있는 학생상담실은 학생
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들에게 자신을
명확히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장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2학기부
터 새롭게 설치되어 아직 홍보가 부족한
탓인지, 실제 학생상담실을 이용하는 학
생 수는 하루평균 1~2명 정도라고 한다.
이것은 학생들이 겪는 고민거리나 고
충이 별로 없어서라고 보기는 어렵다. 일
반적인 근심거리인 학업이나 취업 및 진
로, 교우, 가정, 경제적 문제 등에서 기타
사소하고 새로운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대학생으로서 부딪치는 문제는 여전히
상존 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학생들은 선뜻 자신의 개
인적인 문제를 드러내기를 꺼려한다. 교
수님과의 학업지도 상담시간이 있지만,
형식적인 경우가 허다하고 교수님을 대
하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거나 회피
하는 경우도 있다. 자연히 친한 동기나
선배에게 의존하게 된다. 그것도 여의치
않다면 술, 흡연 등과 같이 부적절한 대
처 방법을 택하기도 한다. 앞으로는 학부
제 혹은 계열별 모집 등으로 더 많은 경

쟁이 부여되고, 동기간 혹은 선·후배의
관계는 예전에 비해 약화될 것이다. 개인
주의적 성향과 대인관계를 막는 장벽이
지금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고 보는 사람
은 많지 않다.

학생상담실의 실질적인 기능 및 홍보
의 확대 그리고 참여증진은 이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다. 단과대 별로 독립적인
학생상담실을 두어야 하며, 학생을 상담
할 상담자는 교수님이나, 관련 직원, 상
급학년 등이 다양하게 참여해야 한다. 이
를 위해 학교측은 일정한 상담 시간과
장소를 정례화하고 제반여건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흔히 인식되듯이 학생들에 대한 상담
이 개인적인 문제의 해결이라는 측면으
로만 보여져서는 안된다. 대학이라는 조
직사회에서 구성원들간의 인간적인 대
면·대화의 통로를 넓힘으로서 얻게되는
신뢰구축의 힘은 대학이 살아 숨쉬는 데
필요한 신선한 공기와도 같다. 반면에 그
것을 소홀히 함으로써 파생될 수 있는
불신의 피해는 작지만 매우 큰 것이다.

정형섭(사회복지학과 조교)

“놀고먹는 대학생들 술취해서 가는 모습이 웃긴다”

올바른 대학 문화를 위해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에 나서야

동국대의 가을은 온방골 학우들이 술
로서 배를 채우는 계절인 것 같다. 학생
이라는 신분에서 시험을 끝냈다는 생각
에 당연히 술을 마실수 있지만 성간동을
누비고 다니는 본교 대학생은 그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이다.

그리고 나뭇잎 생각없이 술로 해방감
을 맛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길을 지나가
는데 고등학생정도 되보이는 학생들의
이야기에 뜨끔했다.

“아! 저기 놀고 먹는 대학생들 술취해서
무더기로 지나가는거 바라. 웃긴다. 그치?”

“외래어 자제하고 우리말 쓰자”

캠퍼스라는 말은 대학교에서 흔히 쓰
는 단어이다.

‘교정’이라는 우리말이 있는데도 왜 굳
이 ‘캠퍼스’라는 외래어를 써야만 할까?

어떤 경우에는 캠퍼스를 ‘캠’이라고 줄
여서 부른다.

이렇게 앞 음절만 끊어서 부르는 것은
일본식 영어표기법이다.

우리말을 놔두고 외래어를 그것도 일
본식으로 줄여서 표기해야 하는 이유는
없다고 본다.

‘서울캠, 경주캠’이 아니라 ‘서울교정,
경주교정’이라고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몇년 전 씨름이라는 외래어를 ‘동아리’라
는 우리말로 몰아냈듯이 이제는 ‘캠퍼스’
라는 말을 ‘교정’이라는 우리말로 몰아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위에서 말한 것 말고도 대학교에서 쓰
이는 외래어가 많다. 그러한 것을 찾아내
서 우리말로 바꾸어 쓰는 노력이 필요하
다.



걸음을 멈추고...

도서관 뒷뜰. 아카시아 고목은 말이 없다. 계절이 바뀌면 나무는 옷을 갈아 입는다. 어느날 오후, 문득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 시작된다.

촬영=송광수 동문

모니터링

제 1282호 동대신문을 읽고

산만한 3면 ... 문화면, 유익한 기사 부족

동대신문은 학생들 뿐만 아니라
동국인이면 누구나 매주 접하게 되
는 신문이다. 그런만큼 학생들에게
유익하고 흥미있는 내용들을 선별해
서 기사를 써야 한다. 그리고 읽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을 해
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동대신문을
읽다 보면 몇 가지 점에서 사실상 그
렇지 못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첫째, 신문기사가 너무 산만하게
배치되어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우
선 현재 지면을 보면 서울보도와 경
주보도로 나누어져 있고 유사한 내
용의 기사가 흩어져 있어 조금은 어
지러운 느낌을 주는데 서울·경주를
나누지 않고 유사한 내용의 기사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이 나을
듯 하다. 그리고 3면의 '오늘부터 각
단체 학술제 열려' 기사는 학술제의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도표로 작성

했더라면 광고효과가 더 크지 않았
을까 생각된다.

둘째, 문화면에서 관심을 끌거나
유익한 기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다가오는 21세기는 흔히들 문화의 시
대가 될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현
시대에 발맞춰 우리의 문화를 소개
하고, 되돌아 보고, 정리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전통(불교)문화와 현대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동국대학교의
학생들이 21세기에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21세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는 과거를 답습하거나 학생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신문이 아닌 진취적인
청년의 한찬 날개짓으로 학생들 곁
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동국인의
참 언론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이강식(경주캠 정각원 조교)

동악광장

목명글

축하합니다

△지났지만 주연이의 생일을 마니마니
축하합니다. -인문99 기별, 종태
△11월달, 수교과 95 선은, 태진 두친구
가 사귀지 벌써 일년이 지났지만, 진심으
로 축하한다고 한번도 말하지 못한게 정
말 미안하다. 항상 행복하길

△영순이가
△양락아. 경미와의 200일 진심으로 축하
한다. 앞으로 영원해라 -강력케 이형사

수고하셨습니다

△수교과 선운본 친구들 수고 많았어요.
고맙구요 사랑해요.

△32대 문과대학생회 건설을 위한 선거
운동원 추운날 고생이 많아요 -배

알립니다

△11월 13, 14일 선덕·용화 동문회 MT
간다. 이 가을의 끝을 잡아오자구!
△11월 10일 32대 총학생회 건설을 위한
2차유세가 야총학우들을 중심으로 동국
관 앞에서 5시 진행됩니다. 학우들과 함
께 열심히 생활하겠습니다. -북

△www.dongguk.pe.kr 동대학우가 만든
동대생을 위한 홈페이지. 마니마니 놀러
오세요. -운영자

그리고...

△정든 상록원 3층을 떠나며... 그동안
보살펴주신 지배인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친우

온방글

축하합니다

△국문과 20주년 학술제 무사히 마친 것
을 축하합니다. 집행부 여러분 수고 하셨
습니다. -국문인
△정용석·행자 선배님 결혼 축하드립니
다. 행복하게 사세요!
-교전극 연구회 탈패 일동

열심히합니다

△국문 94' 신현곤씨 힘내세요. 당신의
결에는 항상 'Y' 가 지켜 보고 있습니다.
△양아찌! 열심히 해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문관

△수경아 힘내!! 니 결연 내가 있단다.

-립보
△힘내라 안·공. 유체역학 듣는 친구야.
시험 2주후에 끝나면 참새방앗간에 모이

자. -준
△원희야! 열심히 살자! 힘내! 완노라.
씨웠노라. 이견노라. -친구

수고하셨습니다

△Newsweek 동아리 공개 발표회 하느라
고생 많았데이. 박캐장 이하 각 조장들
멋있더레이. -안기부장

그리고...

△진희야 소개팅 잘해. 이런 기회는 자주
오게 아니다. -79가
△어려운 주변환경에도 꽃같이 사랑하는
사이가 되도록... -문관

△동기들의 흔들림을 잡아주지 못하는
저의 모습은 정말 축이고 싶을 정도로
밉습니다. 하지만 동기들의 흔들림을 잡
아주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알아주었
으면 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 동물한마리

경주캠 학생회관 식당 차림표

월	어묵전골(1300) 김치두부국(1300) 햄볶음밥(1600) 설렁탕(1800)
화	무채국(1300) 수제비탕(1300) 쇠고기볶음밥(1700) 카레라이스(1500)
수	된장찌개(1300) 열무된장국(1300) 오징어덮밥(1800) 전주비빔밥(1600)
목	연두부국(1300) 돼지국밥(1300) 돈까스(1500) 해물덮밥(1800)
금	무콩나물국(1300) 햄샤어찌개(1300) 김치볶음밥(1600) 갈비탕(1800)
토	미역액된장국(1300) 잔채덮밥(1800)
일	쇠고기무국(1300) 돈육덮밥(1600)

(단위:원)